

孫秉熙, 『準備時代』

허수*

1. 저자

이 책의 저자 손병희(1861~1922)는 동학·천도교의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 1882년 동학에 입문하고 10여 년 뒤인 1894년 북접의 통령이 되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퇴한 뒤 관군의 추격을 피하여 잠행하다가, 1897년부터 실질적으로 동학의 제 3대 교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동학 포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세계정세를 살펴보기 위하여 1901년 일본으로 건너가 1905년 말까지 체류하였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그곳의 근대적 문물을 접하고 문명개화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1902년과 1904년의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다수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일본 유학을 주선하였다. 1903년에는 『삼전론(三戰論)』과 『명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cretaper@gmail.com

리전(明理傳)』을 집필하여 국내 동학교도들을 계몽하는 데 힘썼다. 『삼전론』에서는 도전(道戰)·패전(財戰)·언전(言戰)을 내세워 문명개화의 중요성, 도덕과 산업 발전 및 외교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명리전』에서는 서양의 공화정치나 입헌정치를 논하면서 정치개혁과 부국강병을 주장하였다. 당시 손병희는 도덕을 중시하면서도 현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명개화를 표방하고 있었다. 이런 태도는 본 해제 대상인 『준비시대(準備時代)』(1906(광무 10), 보문관(普文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도 반영되었다.

한편 일본 망명 중인 권동진·오세창 등 개화세력과 제휴한 그는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봄, 대한제국 정부에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개진하고 동학의 중요성과 민회(民會)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동학의 공인을 얻어 낼 목적이 개입되어 있었다. 정부가 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자, 그는 진보회라는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반정부운동을 추진하였다. 이후 국내 동학교단을 책임지던 이용구(李容九) 주도로 진보회는 같은 해 12월 친일단체인 일진회와 통합하였다. 당시 손병희는 이 통합을, 진보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막고 일본세력의 지원을 받아 동학의 공인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생각한 듯하다. 그 과정에서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고 정부 묵인하에서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05년 11월 ‘을사조약 강제체결 즈음 일진회가 이른바 보호청원선언을 발표하여 국민의 비난을 받자, 손병희는 1906년 1월 귀국한 뒤 일진회세력과 결별하였다.

이후 손병희는 정교분리를 표방하며 교단의 중앙집권화와 교리의 근대적 정비 등 천도교를 근대적 종교로 체계화해 나갔다. 한편 각급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일간 시사신문인 『만세보(萬歲報)』 간행, 보문관(普文館)이라는 출판사 운영 등 국민계몽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천도교가 1919년, 전 민족적 항쟁인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2. 구성과 내용

이 책은 동학·천도교 교주 손병희가 1905년 4월 5일 일본 도쿄에서 작성한 것으로, 1906년 8월 출판되었다. 서문을 제외한 전체 내용은 천도교가 발행하던 일간신문인 『만세보』 1면에 1906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연재되었다. 그런데 『황성신문』 1906년 2월 14일자 논설 『사손병희씨 열심교육(謝孫秉熙氏熱心教育)』에서 기사 작성자가 『준비시대』를 구해 읽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1906년 초에 필사본이 이미 국내에 유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전체 내용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되고 있으며, 『한말천도교자료집 2』(최기영·박맹수 편, 1997)에 재수록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재편집하며 입력한 것이 『나라사랑』 제7집(1972. 6)에 게재되어 있다.

이 책은 전체 72면으로 「서(敍)」(3면), 「준비시대(準備時代)」(26면), 「부향자치(附 鄉自治)」(43면)로 구성되어 있다. 국한문혼용체로 띄어쓰기는 되어 있지 않으며 한 면은 13행, 1행은 최대 23자로 이루어져 있다.

「서」에서는 맨 마지막에 ‘光武 九年 四月 五日 東瀛寓屋 書’라 하여 작성 시점과 손병희의 필명으로 보이는 동영우옥(東瀛寓屋)이 명기되어 있다. 여기에서 손병희는 우리나라가 멸패(滅敗)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주와 독립을 획득하려면 온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나서야 하며, 그렇지만 이 일은 시일이 걸리므로 꾸준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준비시대」는 단행본의 제목과 동일하다는 점에서나 내용 면에서 볼 때 이 책의 본론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입 부분(1면)이다. 여기에서는 4천 년이 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몽매하며 압제에 빠진 유래를 역사 속에서 살펴보고 이를 변통할 방도를 찾자고 제안하였다.

둘째, 국민의 단결을 주장하는 부분(10면)이다. 앞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역

사를 삼국시대부터 당대까지에 주안점을 두고 개관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진취적이고 부실(富實)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국민의 기력이 남아 있어 흥건적과 여진을 물리쳤지만, 무인이 발호하고 불교가 문란하여 인심이 이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문약, 몽매하고 이용(利用)과 후생을 멀리하다가 폐국(閉國)하여 자거(自居)하였다. 한편 뒷부분에서는 금일의 급무가 국민의 단결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금일의 허물은 정부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吾) 동포 국민이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 국가는 한 사람의 사유가 아니라 만민의 공유인 까닭이다. 정부가 나쁜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으니, 국세(國勢)가 급하므로 동포여 금일의 급무는 국민의 단결에 있다’고 하였다.

셋째, 당면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부분(15면)이다. 손병희는 우선 우리 동포가 모색해야 할 방안인 ‘강국(強國) · 부국(富國) · 문명국 · 자유국’을 ‘4강(綱)’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자수(自修)’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법권(法權) · 철도 · 광산 · 관세’를 ‘4목(目)’이라 부르면서, 이는 타국과 관계있는 부분으로 보았다. 나아가 4강과 4목을 준비하는 방법은 ‘교육을 경(經)으로, 경제를 위(緯)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교육과 경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준비시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금일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서 시일을 들여 꾸준히 해나가야 하므로 지금은 아(我) 동포의 준비시대라 부를 만하다’라고 풀이하였다.

넷째, 「준비시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1면)으로,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자’고 호소하였다. 손병희는 ‘2천만 형제가 힘을 합칠 수 있는 대단체를 조직하자’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출발점으로 ‘향자치’를 제안하였다.

「부 향자치」는 최대 분량을 차지하는데(43면), 이 책의 부록에 어울리는 내용과 구성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향(鄉)은 면(面)을 가리키며, 최하급 정치 기관이자 전국의 정치를 떠받치는 지방자치의 실행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전체를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첫째 ‘향무소(鄉務所) 인원과 업무’(37면), 둘째 ‘향회(鄉會)의 성격과 임무’(3면), 셋째 ‘재원조달 방안’(3면)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을 보면, 향무소는 향자치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로 구성원은 ‘향장, 부장, 수세원(收稅員), 서기’이다. 그 업무(職掌)는 ‘지적(地籍)사무, 호적사무, 민업(民業)사무, 도로사무, 수세사무, 소학교유지사무, 위생사무, 징병사무, 향유재산(鄉有財産)관리사무, 공동묘지사무, 기타 일체 공공사무’의 11개가 있다. 이 11개 업무에 대한 설명이 34면으로 첫째 부분 서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지적사무·호적사무·민업사무 서술이 합계 23면이나 되어 3개 업무가 가진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향무소를 견제하는 향회의 임무를 명시하면서 향장을 소(小)총리대신, 향무소를 소정부로, 그리고 향회를 소국회에 비유하였다. 셋째 부분에서는 향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안으로 재원조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시의 향수(鄉數)를 5천 개로 보아 이 수로 인구 2천만을 나누어 1개 향당 인구를 4천 명으로 산출하고, 다시 이를 1호당 5구(口)의 값으로 나누어 800호를 산출하였다. 그 뒤 1호당 평균 소출을 2원 50전으로 산정하여 1개 향당 2천 원의 재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런 산정기준과 이에 기초를 둔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가능한 방편으로 전지(田地)와 민호(民戶), 민업 부문과 부유한 호에 대한 과세, 황무지와 산림을 활용한 이익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3. 의의

이 책은 동학이 천도교로 개편(1905. 12)될 무렵 동학 교주 손병희가 가진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준비시대’라는 저서 이름은 그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손병희에 따르면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제국과 한국인이 자주국·독립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강함과 부함, 문명함, 자유함을 원하면 강하고 부하고 문명하고 자유할 준비를 먼저 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부·문명·자유’를 언급한 뒤 ‘법권, 철도, 광산, 관세’의 현황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상세하게 언급하며, 부록의 ‘향차치’에서 먼 단위의 자치행정에 대하여 소상하게 정리하였다. 이는 위기에 처한 대한제국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국가개혁방안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에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무력항쟁의 실패 경험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보고 느낀 경험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념사 연구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의 서술에서 핵심적인 주어이자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가진 용어로 ‘국가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서」의 첫 문장은 “吾人 이 此國에 生하니 此國은 吾國이라”이다. 손병희는 ‘吾國’의 상대어로 ‘他國’을 대비시키고, 국의 자주·독립을 타국의 간섭·침범과 각각 대립시키며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 자연스러운 귀결로, 서론의 마지막 문장은 “我同胞은…… 奮然히 起하여…… 神壇 四千年 國家와 聖李 五百年 宗社로 萬世不拔하는 基에 立하여 宇內萬國으로 더불어 友好和睦을 共享할지어다”로 제시되었다. 우리의 국가를 반석 위에 세워 세계 각국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다. 한편 본론에 해당하는 「준비시대」에서는 吾國/他國보다는 我國/彼國의 대비가 주로 사용되는 점 또한 흥미롭다. 여기에서 彼國은 ‘세계의 열국’으로 설명된다.

둘째, 이 책에서는 국민·동포 등의 용어가 국가 못지않게 중요시된다는 점이다. 손병희는 우리나라 역사를 개관하면서 삼국시대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이후의 과정을 점진적인 쇠퇴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麗朝에…… 국민의 氣力이 전부 소모하지 않아 紅巾을 破하며 女眞을 拓하였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국민의 기력을 상정하는 대목이 주목된다. 또한 손병희는 ‘국가는 만민이 소공(所共)한 것이므로 국가의 일은 국민의 일이다’라는 인식을 피력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등용·축출(黜陟)과 상벌은 인민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다’고 하여 정부에 대한 민의 감시와 견제 필요성을 밝혔다. 손병희의 주장은 ‘금일의 급무는 국민의 단결에

있다고 귀결된다. 그는 이런 단결의 출발점으로 면 단위의 자치행정에 기초를 둔 향자치를 제시한다.

셋째, 이 책의 향자치 관련 내용이 손병희의 일본 경험과 직간접적으로 관계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면을 단위로 하는 향자치의 내용에는 향사무소의 구체적인 업무 11개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으며, 그중에서 빅 3에 속하는 지적사무와 인적(人籍)사무에 관한 설명에서는 간략한 서류양식도 제시해 놓았다. 이런 지방자치 구상이 당대 일본의 지방자치 논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만일 있다면 구체적인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제국이나 이후 통감부 및 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등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